

강인규 나주시장과 나주시 금라회, 상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3일 출근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들에게 업무 개시를 축하하는 꽃다발을 전달한 뒤 자리를 함께

나주 혁신도시 기관 이전 절반 넘었다

강인규 시장, aT 환영행사 내일 농어촌공사 이전 시작 전남 농수산업 시너지 효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농수산 관련 공기업들이 속속 자리를 틀고 있다. 지 난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에 이어 26일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이전 이 시작된다. 이들 기관들이 자리를 잡 게 되면 농수산업의 메카인 전남의 특성 과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시 금라회, 상

인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23일 아침 출근 시간에 맞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 청사 앞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입주 를 축하하며 꽃다발을 전달하고 임직원 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생활안내책 자도 함께 전달하는 환영행사를 가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나주 빛 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7번째 공공기관 으로, 부지 1만8782m², 건축연면적 1만 9012㎡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로 청사를 신축, 17개 부서에 322명의 직원 이 근무한다.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나주로의 청 사 이전을 완료한데 이어 22일부터 새 청사에서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축산 식품부 산하기관으로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수출 증대·유통 개선 및 식품산업 육성으로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국민경 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또 한국농어촌공사는 26일부터 이전 을 시작해 오는 29일부터 업무에 들어간 다. 이전 직원 수는 732명으로 빛가람혁 신도시 이전 기관 중 한국전력(1425명), 한전 KDN(944명), 우정사업정보센터 (816명)에 이어 4번째 규모다.

신청사는 부지 11만5466㎡, 건축연면 적 4만3370㎡, 지상 18층으로 지어졌다. 지난 1908년 설립된 농어촌공사는 농업

인들이 가뭄·홍수 등 풍수해 걱정없이 종사하고, 영농 규모 확대와 고품질 농 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준정 부기관이다.

한편 빛가람혁신도시에는 지난해 3월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첫 번째로 입주한 데 이어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방송 통신전파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이 차례로 이전해 업무에 들어갔다. 올 연 말까지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 KPS, 전력거래소,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단 등 5개 기관이 이전하면 16개 공공 기관 가운데 13곳이 둥지를 틀게 된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한다

주인이 회수 방해하면 손배책임, 임차인에 5년 계약 보장 자영업자·장년층 고용 대책…임금피크제 1080만원으로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을 정부가 고시로 정한다. 모든 임차인이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는다.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이 연간 1080만원으로 확대되고 시간선 택제 전환과 전직 장려금도 지원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런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 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애로 사항 인 권리금의 보호를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 상가 임 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 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 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 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현재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상가주인)이 권리 금을 직접 받는 경우가 있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 임 지급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협력 의무를 부과받는다.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 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 년 간(계약갱신보호기간) 계약기간이 보 장된다.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금의 정의 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가임대차와 권리 금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50세 근 로자에게 경력진단, 진로, 노후설계 등 생 애설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년 나침 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임금피크제 재 정지원을 2년간 한시적으로 1인당 840만 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린다.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부여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중소·중견 사업 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의 장려금 을 지원한다. /연합뉴스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내일 개막

28일까지 담양 죽녹원

제21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26일부 터 28일까지 담양 죽녹원 앞에서 '남도의 맛, 건강한 밥상'이란 주제로 열린다.

상달행렬로 시작되는 이번 축제는 풍 년농사에 대한 감사와 태평성대를 기원 하는 행사로 22개 시·군에서 특별히 준비 한 진설음식으로 제를 올린다.

남도음식 전시관은 전시콘텐츠를 대폭 보강해 역사관, 명인관, 세계관, 주제관, 시군관 등 5개 공간으로 운영된다.

전시 음식은 친환경 대나무 찬기에 담 아 시식할 수 있다. 개당 2000원에 판매 해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

시·군 대표음식 판매장터는 1000여 명 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대형 홀 텐트를

도내 11개 시·군 농촌체험마을의 음식 만들기 체험 등 체험행사도 다체롭게 마 련됐으며, 운수대통 아이스크림 무료 제 공이벤트도 진행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농촌 관광주간' 통합쿠폰으로 할인 받으세요

전남도, 다음달 5일까지…체험·특산품 구매 등 이용

전남도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농촌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촌마을 체험 프로 그램 할인 등 우대서비스와 생산품 구입 등에 이용 가능한 통합쿠폰을 발행하는 '농촌관광 주간'을 운영한다.

'농촌관광 주간'은 농산물 수확 등 체 험거리가 가장 풍부한 시기인 가을철 (9~10월)에 관광객을 농촌으로 유도해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외소득 증대를 목 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농촌관광 주간 기간 내에 도내 농촌체 험 휴양마을에서는 체험상품 할인, 마을 기념품 제공, 재방문 사용 쿠폰 증정 등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쿠 폰은 체험, 숙박, 식사 및 농·특산물 구매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소셜 커머스(위메프 www.we→ makeprice.com)에서 지난 18일부터 선 착순 무료 발급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 일대 미기록·희귀 버섯 6종 발견

완도수목원 버섯 채집회·세미나

완도수목원이 수목원과 해남 두륜산 등서 국내 버섯 미기록 3종과 희귀 3종을 발견, 전국 산림연구기관들이 참석한 버 섯 채집회에 발표해 국내 버섯 학계의 비 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완도수목원에 따르면 국내외 학술 분야에서 생물다양성 가치를 인정받고 있 는 완도수목원과 두륜산 일대에서 19일까 지 5일간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목원, 국 립농업과학원, 각도 산림연구기관 등이 참 여한 가운데 공동 버섯 채집회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26명의 버섯 연 구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 세미 나와 버섯채집회로 진행됐다.

완도수목원은 이 자리에서 수목원 57 종, 두륜산과 달마산 26종 등 그동안 채집 한 총 83종의 버섯을 발표했다. 특히 국내

미기록종으로 추정되는 3종(Coprinus insignis, Geastrum rufescens, Tricholoma radicans)의 버섯이 완도수목 원과 달마산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해 눈 길을 끌었다. 또 국내에서 보기 드문 희귀 버섯인 회색꾀꼬리버섯, 털개암버섯, 긴 뿌리광대버섯도 채집, 앞으로 난대숲속 에 분포하는 버섯종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이뤄질 전망이다.

버섯은 전 세계적으로 약 1만4000여 종에 이르고 있으나 한반도에 자생하는 버섯은 약 5000여 종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현 재까지 자생이 확인된 국내 버섯기록종은 1500여 종으로 약 10%에 그치고 있다.

완도수목원은 올해부터 난대숲속의 버 섯유전자원을 수종별, 계절별로 지속적 으로 조사해 미기록종을 발굴하는 한편







완도수목원이 수목원과 두륜산 등지에서 발견한 국내 미기록종 버섯들.

식용·약용 등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버 섯종 확보에 초점을 맞춰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발견된 미기록 종 버섯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DNA 분석을 거쳐 유전정보를 확인한 후 국내외 관련 학회에 논문으로 게재할 예

오득실 완도수목원장은 "지금까지 버 섯종 정보가 부족한 완도수목원 난대림 에서의 버섯 조사는 토종 유전자원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 /윤현석기자chadol@



